

교 훈

1. 우리는 제세주 수운천사님을 모양한다.
2. 우리는 유불선 합일의 대도를 천하에 전도한다.
3. 우리는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의 삼대원을 성취한다.
4. 우리는 사람 섬김을 하늘님 공경하듯이 한다.
5. 우리는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지상천국을 건설한다.

수운교보

· 발 행 인 : 총무원장 김 옥 현
· 편집주간 : 부총무원장 김 영 기
· 발 행 처 : 수 운 교 본 부
· 발 행 소 : 34059 대전시 유성구 자운로 245번길 80(추목동)
· 창 간 일 : 수운강생 175년(1996) 11월 15일
· 전화/팩스 : (042)861-1771·861-1770/862-1772
· 인 쇄 처 : 삼성디자인기획 (042)221-3111
· 홈페이지 : <http://www.suwoongyo.or.kr>

도솔천 칠석기도, 성경신으로 하나 된 동귀일체 나의 평안에서 이웃의 행복까지, 한마음으로 발원

수운강생 205년 8월 13일(음력 7월 1일)부터 8월 19일(음력 7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본부 도솔천 및 전국 각 지부 천법당에서 칠석기도를 정성껏 봉행하였다.

도솔천은 하늘님을 중앙에 모시고 일광(日光) 성덕군과 월광(月光) 순덕군 양위선생님을 좌우에 모신 수운교의 최고 성전이다. 또한 복두칠성을 비롯한 사대칠성과 삼태육성 등 여러 성신을 봉안하고 있어, 칠석을 맞아 하늘님 전에 정성을 올리고 칠성님의 가호를 기원하는 뜻깊은 성전이기도 하다.

첫날부터 폭폭 찌는 폭염이 이어졌지만 기도에 임하는 교인동덕 여러분의 정성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도솔천 김승천 경위사, 봉령각 오영순 정위사, 법회당 이경화 정위사의 집례 아래 동참교인 570여 명의 이름을 올리고, 매일 60여 명의 교인동덕이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도솔천에 모여 일심정성을 다하였다.

김승천 경위사의 소례참에 따라 예참을 올리고 동참교인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호명하며 축원하였다. 이어 참배교인들은 한목소리로 복두주 28회와 105번의 정근을 봉송하였다. 간절한 주문 소리가 도솔천 경내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교인들은 잠시 세속의 번뇌를 내려놓고 성경신(誠敬信)의 마음으로 하늘님과 칠원성군 전에 정성을 올렸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칠성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간직해 왔다. 우리 부모님과 선대 어른들은 칠석이 되면 장독대에 맑은 정화수를 떠놓고 밤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모았다.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고, 병든 가족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며, 집안에 액운이 물러가고 한 해가 무사태평하기를 칠성님 전에 간절히 기도하였다. 화려한 제물보다 맑은 물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이었고, 자신보다 가족과 자손을 먼저 생각했던 부모의 지극한 사랑이었다.

도시화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이제는 이러한 모습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지만, 그 속에 담긴 신앙의 마음까지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이다. 칠석기도는 바로 그 정성을 오늘에 이어가는 소중한 신앙의 전통이라 하겠다. 칠석에는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헤어져 있다가 까치와 까마귀가 놓아준 오작교를 건너 일 년에 한 번 만난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헤어졌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칠석의 의미를 생각하면, 칠석은 단

순히 복을 비는 날에 그치지 않고 멀어진 마음이 다시 가까워지고, 갈라진 인연이 화합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되찾는 날로도 새겨볼 수 있다.

김옥현 총무원장은 설법에서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칠일 동안 한결같이 성경신을 다하여 집례를 주관한 경·정위사와 기도에 동참한 모든 교인동덕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김 총무원장은 “칠석기도에서 우리가 비는 것은 나 한 사람만의 복이 아니다. 내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부모와 자녀도 건강하기를 빌어주고, 내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웃의 가정도 평안하기를 함께 기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어 “내 자녀의 앞길이 잘 열리기를 바라듯 다른 사람의 자녀에게도 좋은 길이 열리기를 빌고, 내가 병고액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듯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병고와 액란에서 벗어나기를 함께 발원해야 한다”며 “그러한 마음이야말로 사람 섬김을 하늘님 공경하듯 하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의 마음”이라고 설법하였다. 또한 “우리가 하늘님 전에 정성을 올릴 때에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나와 인연 맺은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면 미움을 내려놓고, 서운했던 사람이 있다면 먼저 마음을 열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며 “좋은 인연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마음을 내고 상대를 귀하게 여길 때 맺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김 총무원장은 “나의 행복만을 구하는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의 행복을 함께 빌어주는 기도, 내 가정의 평안에서 더 나아가 이웃과 사회와 온 세상의 평안을 함께 기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 모두의 간절한 정성이 하나로 모이면 각자위심(各自爲心)을 넘어 동귀일체(同歸一體)의 큰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일주일 동안 계속된 기도에서 교인동덕 여러분들은 자신과 가족의 무병장수와 수명복록, 자녀들의 앞날과 소원성취를 발원하는 한편, 병고로 고통받는 이들의 쾌유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평안, 모든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함께 기원하였다. 또한 나라와 사회가 평안하고 세계 곳곳의 갈등과 다툼이 사라져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오기를 한마음으로 발원하였다. 나와 남을 가르지 않고 서로의 행복을 함께 기원하는 마음, 그것이 사인여천이며 동귀일체이고, 마침내 만화귀일(萬化歸一)로 나아가는 수운교 신앙의 실천이라 할 것이다.

칠일 동안 도솔천에 울려 퍼진 주문과 정근 소리는 단순한 소리만이 아니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었고, 자식이 부모의 건강을 비는 마음이었으며, 이웃이 이웃을 염려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발원이었다.



백중 위령재 봉행

선망부모조상과 모든 영가의 이고득락·극락왕생을 한마음으로 발원

수운강생 205년 8월 27일 (음력 7월 15일) 오전 10시, 본부 법회당 및 전국 각 지부 천법당에서 선망부모조상을 비롯하여 독립유공자와 전몰군경, 인연 있는 영가와 무주고혼의 이고득락(離苦得樂)과 극락왕생(極樂往生)을 기원하는 백중 합동위령재가 교인동덕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이날 백중 위령재는 도솔천 김승천 경위사, 봉령각 오영순 정위사, 법회당 이경화 정위사와 진천지부 이장성 지부장의 집례로 진행되었다. 김옥현 총무원장, 김범주 부법사원장, 윤현진 감리원장의 명축분향에 이어 보례진언과 『천수경』 봉독을 시작으로 제불통청, 청사바라, 정근이 이어졌으며, 참석한 교인동덕들은 한마음으로 영가님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나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기를 축수발원하였다. 이어 신중단 공양례를 올린 뒤 박신규 신도회장의 사회로 헌작이 진행되었다. 초헌관에는 김옥현 총무원장, 변동주 법사원장, 윤현진 감리원장이 헌작하였으며, 아헌관에는 이영주 고문, 강서조 고문, 김덕환 전 총무원장이, 종헌관에는 조양선 부녀회장, 석종섭 전 법사원장, 정기종 전 법사원장 등이 각각 정성을 다해 잔을 올렸다.

백중 위령재는 선망부모조상의 크신 은덕을 되새기고, 인연 있는 모든 영가가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나 이고득락하고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는 뜻깊은 천도의식이다. 백중을 우란분절(盂蘭盆節)이라고도 하며,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모와 조상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보살펴 주신 부모와 조상의 은혜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다. 살아 계실 때 다하지 못한 효도와 감사가 있다면 영전에 정성을 올리고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다시 이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위령재는 돌아가신 분들만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 있는 우리 자신이 생명의 뿌리와 은혜를 되돌아보고 효와 공경의 마음을 되새기는 신앙의 시간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이날 위령재에서는 내 부모와 조상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전몰군경, 그리고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무주고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가의 평안을 함께 기원하였다. 내 조상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이의 조상과 영가도 귀하게 여기고, 인연이 있든 없든 모든 영혼의 평안을 함께 발원하는 것은 사람 섬김을 하늘님 공경하듯 하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

김옥현 총무원장은 설법에서 현재 영단에 49재 공양을 올리고 있는 유만준 영가, 김기분 영가, 김석기 영가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호명하며 참석 교인들과 함께 왕생극락을 기원하였다. 아울러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원근 각지에서 백중 위령재를 위해 찾아온 교인동덕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김 총무원장은 “오늘 우리가 올리는 정성은 돌아가신 영가님들이 좋은 곳으로 이고득락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자, 부모조상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효의 실천”이라며 “내 부모 조상만이 아니라 인연 있는 모든 영가와 의지할 곳 없는 무주고혼까지 함께 생각하고 천도를 발원할 때 우리의 정성은 더욱 크고 깊어질 것”이라고 설법하였다.

이날 위령재를 위해 신도회에서는 이른 시간부터 법회당 마당에 의자를 정돈하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차광막을 설치하였다. 부녀회원들도 정성을 다해 공양물을 마련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손길이 더해져 장엄한 위령재를 원만히 봉행할 수 있었다.

법회당에 모인 교인동덕 여러분들은 향과 촛불을 밝히고 두 손을 모아, 부모조상과 모든 영가가 세상의 원과 한을 내려놓고 하늘님의 크신 덕화와 불천사님의 천덕사은(天德師恩) 속에서 편안한 곳으로 이고득락하기를 간절히 발원하였다.



3.7일 삼대원 성취 발원 기도

- 일 시 : 수강 205(2026)년 10월 8일 ~10월 28일(21일간)
- 장 소 : 본부 봉령각 / 각 지부 천법당



수운강생 205년 상반기 감사 실시



교무행정·재무회계 및 경내 제
반사항 점검

수운강생 205년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본부 사무실에서 상반기 감사가 실시되었다. 이번 감사에는 윤현진 감리원장, 조대연 감리부원장, 박기

완 감사부장, 나예주 심리부장이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리원에서는 비가 내리고 무더운 삼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무행정과 재무회계 업무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아울러 도솔천·봉령각·법회당을 비롯하여 천사님 산소 등 경내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시설관리와 안전대책 등 여러 제반사항을 점검하였다.

윤현진 감리원장은 감사를 마친 뒤 총평을 통해 감사 준비에 수고한 총무원 임직원과 삼단 경·정위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이어 교육관 정비를 비롯하여 문화재의 수해 예방대책 강구, 인사관리의 내실화, 교보의 체계적인 관리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앞으로 각 부서가 맡은 업무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교단의 행정과 재정, 문화재와 시설관리는 수운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인 만큼, 맡은 직분에 책임과 정성을 다하고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윤현진 감리원장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교단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면서 상반기 감사 총평을 마쳤다. 이번 상반기 감사는 교단 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건실하고 원활한 교무행정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수능 100일 기도 봉행

수능·취업·진급 준비생들의 학업 소원성취를 발원하는「수능,특별 100일 기도」가 지난 8월 11일 오전 10시 본부 봉령각에서 봉행되었다.

이번 100일 기도는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비롯하여 취업과 진급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의 앞날에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하고, 각자가 세운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 발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기도에는 동참 교인 15명이 함께하였으며, 오영순 정위사의 집례로 경건하게 봉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준비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뜻을 생각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기도하였다.

이번 기도는 8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계속된다. 특히 매일 조석으로 준비생들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며 축원 발원을 올림으로써, 기도에 동참한 모든 이들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이어가고 있다.

수험생들에게 수능은 오랜 시간 노력해 온 결실을 맺는 중요한 순간이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불안, 긴장도 겪게 되지만, 가족과 교인들의 따뜻한 기도와 응원은 수험생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에 100일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며 건강과 평안, 집중력과 지혜를 갖추고 시험 당일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기를 간절히 발원하고 있다. 또한 취업과 진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열리고, 그동안의 노력과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아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함께 기원한다. 무엇보다 이번 100일 기도는 단순히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데 그치지 않고, 준비생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굳건히 하도록 함께 정성을 모으는 데 그 뜻이 있다.

모든 준비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좋은 결실을 맺고 뜻하는 바를 이루기를, 그리고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성경신(誠敬信)의 마음으로 100일 동안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모든 준비생들의 앞날에 밝은 길이 열리고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한다.

교역자 교육생 수료식



김덕제(철호), 6개월 교육과정 마치고 교역자로 새 출발

수운강생 205년 7월 2일 본부 법회당에서 교역자 교육생 김덕제(철호)의 수료식이 거행되었다. 철호자는 지난 1월 5일 제주 감무원에서 김석보 감무원장과 송선호 의전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역자 교육 입소식을 갖고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시작하였다. 이후 피교육생으로서 교리와 경전, 의례와 교역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익히며 성실하게 책무를 다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날 뜻깊은 수료를 맞이하였다. 수료식에는 김옥현 총무원장과 변동주 법사원장을 비롯하여 본부 삼단 경·정위사, 김석보 감무원장, 송선호 의전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특히 철호자의 조부(祖父)인 김영호 안택지부장도 자리를 함께하여 손자가 교역자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을 축하하고 앞날을 격려하였다.

김옥현 총무원장은 김덕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하였다. 이어 “오늘의 수료는 교육의 끝이 아니라 교역자로서 새로운 수도와 교화의 길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라며 “이제 피교육생의 자세에서 벗어나 수운천사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성경신(誠敬信)을 다하여 교인동덕을 살피고 교단을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교역자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교육생이 소정의 과정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도한 김석보 감무원장과 송선호 의전부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이어 변동주 법사원장과 김석보 감무원장도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였다. 또 이날 참석자들은 6개월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마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김덕제 교역자에게 따뜻한 축하와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 수운교의 진리를 배우고 전하는 참된 교역자로 성장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하였다. 교역자의 길은 직책을 맡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귀하게 섬기며 수운천사님의 가르침을 앞장서 실천하는 데 그 본뜻이 있다.



경전

[경념총화]

제9장 不字下敬念 齊家章
불 자 하 경 념 제 가 장

집안을 정돈하는 말이니라

- 1 가위일인지사회니 삼강이 생언하고 오상이 정언이니
家爲一人之社會 三剛 生焉 五常 定焉
일가인하면 일국이 흥인하고 일국이 흥하면 천하평하여
一家仁 一國 興仁 一國 興 天下平
만방이 흥인하느니 일가부제면 천필염지하사
萬邦 興仁 一家不齊 天必厭之
경가패파산업하고 일가화합하면 천필애호하사
傾家敗破産業 一家和合 天必愛護
만사성취하고 일문이 창대하느니라
萬事成就 一門 昌大

집은 한 사람의 사회가 되느니 삼강이 닳게 되고 오상이 정하게 되느니 한 가정이 어질면 한 나라가 어진 것이 흥하고, 한 나라가 흥하면 천하가 태평하여 모든 나라가 인자하게 되느니라.
한 가정이 정돈되지 못하면 하늘이 반드시 싫어하사 집안이 기울어져 망하며 사업은 실패 하게되고, 한 가정이 화합하면 하늘도 사랑하여 보호하사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나가고 한 집안이 창성하여 지느니라.

- 2 사무친소하고 물무후박히 일시동애하고 항어일심에
事無親疎 物無厚薄 一視同愛 恆於一心
경념시천하되 원기제화하면 일가지화가
敬念侍天 願其齊和 一家之和
화피초목하고 퇴급만족하니라
花被草木 賴及萬族

무슨 일이던지 친하고 불친함이 없고 물질에 후박함이 없이 똑같이 보고 사랑하여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과 공경하는 생각으로 하늘님을 모시되 그 정돈되고 화목함을 원하면 한 가정이 화목함이 초목에 까지 미치고 온 인류에 까지 힘입어 미치느니라.

제10장 忘字下敬念 治國章
망 자 하 경 념 치 국 장

나라를 다스리는 말이니라

- 1 국위만민지사회니 생명이 계언하고 치난지도가
國爲萬民之社會 生命 係焉 治亂之道
소유생야라 재상불교하며 위하불패하여 상하각득기정하며
所由生也 在上不驕 爲下不倖 上下各得其情
각안기업하여 경념시천하되 원기우순풍조하고
各安基業 敬念侍天 願其雨順風調

시화연풍하면 황천이 권고하사 강구연월에
時和年豐 皇天 眷顧 康衢煙月
불기연이연이오 무위화이화의니라
不期然而然 無爲化而化矣

국가라 하는 것은 만민의 사회가 되는 것이니 생명이 매이게 되고 어지러움을 다스리는 도가 생하는 바라. 윗 사람이 되어서도 거만하지 말며 아랫 사람이 되어서도 어기지 말아서 윗 사람과 아랫 사람이 각각 뜻을 합하여 각기 그 직업을 편안히 하여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늘님을 모시되 순순히 내리는 비와 골고루 부는 바람을 원하고 시절이 고르고 곡식이 풍년되면 하늘이 돌아보시사, 태평한 세월에 평화로움을 기약치 않아도 그렇게 되고 또 그래서 하염없이 화하고 화하니라.

제11장 萬字下敬念 平天下章
만 자 하 경 념 평 천 하 장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말이니라

- 1 보천지하위만국지사회니 문명야강언하고
普天之下爲萬國之社會 文明也強焉
발달야교막교언이나 비도불행이오 비덕불화의니라
發達也巧莫巧焉 非道不行 非德不和矣
하늘 아래의 전체는 만국의 사회가 되느니 문명한 자 강하고 발달은 교묘하고도 교묘함이 더할 수 없으나 도가 아니면 행치 못하게 되는 것이요, 덕이 아니면 화목치 못하게 되느니라.
2 천자수덕해도면 구여가 회덕하며 사이빈복하고
天子修德行道 九黎 懷德 四夷賓服
제후수덕행도면 사서인이 수덕행도면 향당이
諸侯修德行道 士庶人 修德行道 鄉黨
흠모하고 입신현명하느니 자상달 하로 도성덕립하고
欽慕 立身顯名 自上達 下 道成德立
행기인선하여 화급만방하면 천필박애하사 사지이
行其仁善 化及萬邦 天必博愛 賜之以
무량목록 하시느니
無量福祿

천자가 덕을 닦고 도를 행하면 먼나라 백성이 덕을 사모하며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가 복종 하게 되고, 제후가 덕을 닦고 도를 행하면 백성이 공경하게 되고, 보통 백성이 덕을 닦고 도를 행하게 되면 마을사람이 공경하며 사모하게 되고 위신이 서게 되며 이름이 세상에 나타나니 위로부터 아래까지 미치므로 도가 이루어지며 덕이 서게 되고, 그 어질고 착한 것을 실행하여 덕화가 온 세상에 까지 미치면 하늘이 반드시 널리 사랑하사 무량한 복록을 주시느니라.

〈이어서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인등기도 200일째 봉행

수강 205년 9월 13일 일요일 오전 10시, 인등기도 200일째 봉행과 법일예식을 봉령각에서 함께 봉행하였다.

이날 예식은 오영순 정위

사와 김승천 경위사, 이경화 정위사의 집례로 1,330명의 축원명부를 일일이 호명하며, 가내평안과 병고액난, 무병장수 등을 기원하는 축원발원 기도를 봉행하였다.

오영순 정위는 인등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로 재앙과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모두가 수운천사님의 제자로서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기도에 매진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김옥현 총무원장은 설교를 통해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마음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관실행 중 하나인 기도 봉행에 많은 교인들이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인등기도 200일째 봉행을 통해 교인들은 각자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수운천사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더욱 정성스럽게 기도에 임할 것을 다짐하였다.



단오 시향제 봉행

선현과 선망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정성으로 헌작

수운강생 205년 6월 19일(음력 5월 5일) 단오를 맞아 본부 공설묘지에서 유가족과 교인동덕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오 시향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시향제는 도솔천 김승천 경위사, 봉령각 오영순 정위사, 법회당 이경화 정위사, 진천지부 이장성 지부장의 집례로 엄숙하게 진행되었으며, 김옥현 총무원장과 윤현진 감리원장도 함께 참배하였다.

참석자들은 먼저 공설묘지에 모셔진 선망부모조상과 선현들의 영령을 추모하고, 그 은덕을 기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를 올렸다. 이어 유가족들은 차례로 헌작하며 고인의 명복과 평안을 기원하고 생전에 맺었던 소중한 인연과 은혜를 되새겼다.

김옥현 총무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단오 시향제는 우리 수운교에서 매년 음력 5월 5일 단오절을 맞아 정성스럽게 봉행해 온 뜻깊은 행사”라며 “수운천사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이곳에 잠들어 계신 선현과 선망부모조상의 은덕을 잊지 않고 추모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유가족들이 정성껏 잔을 올리고 예를 갖추는 것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온 효와 보은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수운교는 동학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유·불·선 합일의 대도 안에서 전통적인



제례문화도 수용하여 수운교 고유의 신앙과 예법으로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김옥현 총무원장은 공설묘지에 잠들어 계신 모든 영령들의 명복과 평안을 기원하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였다.

2026년 상반기 민족종교 학술대회 개최



이찬구 전 법사원장, 「민족종교의 非戰平和 사상과 세계사적 의의」 기조강연

2026년 7월 3일 겨례열 연수회관 3층 대강당에서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2026년 상반기 민족종교 학술대회가 「민족종교와 평화공동체」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날 학술대회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의 대회사와 정천기 겨례열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우리 수운교 이찬구 전 법사원장(인하대학교 특임교수)이 「민족종교의 非戰平和(비전평화) 사상과 세계사적 의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이찬구 교수는 우리 민족의 평화사상이 개천신화에서부터 이어져 온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환웅과 웅녀의 결합은 전쟁과 정복이 아닌 수행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비전평화(非戰平和)의 정신이며, 이는 홍익인간의 개천이념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오늘날 세계는 자국의 이익과 패권을 앞세운 비홍익적·비평화적 질서 속에서 전쟁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인류가 전쟁과 대립을 넘어 홍익인간과 비전평화의 정신을 세계평화의 새로운 가치로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임형진 경희대학교 교수가 「동학사상과 평화공존의 공동체정신」을, 박광수 원광대학교 교수가 「초종교시대 한국민족의 상생철학과 과제」를, 김방룡 충남대학교 교수가 「갈등치유와 화해상생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발표자들은 민족종교가 지닌 평화와 상생, 공동체 정신을 오늘의 사회적 갈등과 국제적 대립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종교 간의 벽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갈등을 치유하여 화해와 상생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 시대 종교계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임을 함께 강조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신광철 한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을 비롯한 한국 민족종교에 내재된 비전(非戰)·평화·상생·화해의 사상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현대사회와 세계평화의 문제로 확장하여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아울러 종교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갈등을 치유하고 서로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이어주는 평화의 가교가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운교 본부에서는 김옥현 총무원장을 비롯하여 박신규 신도회장, 박세조 신도회 부회장, 조양선 부녀회장, 오영순 정위사, 유희자 학선군부인 등이 참석하여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종합토론을 끝까지 참관하였다.

대전 국학원, 본부 도솔천 방문



수운강생 205년 8월 15일 대전 국학원 단원 40여 명이 인솔자와 함께 수운교 본부 도솔천을 방문하였다. 이날 오창운 前 교무부장은 방문단을 맞아 단군신화와 홍익인간의 정신을 비롯하여 수운교의 역사와 진리에 대해 설명하고, 도솔천 경내를 안내하면서 천단의 의미와 수운교의 신앙전통을 소개하였다.

대전 국학원 단원들은 설명을 경청하며 도솔천과 수운교의 역사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뜻깊은 안내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또한 “수운교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다음 기회에 다시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일정을 마쳤다.



수심정기(守心正氣)와 수운교 신앙

천사님께서 「수덕문」에서 수심정기(守心正氣)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인과 의와 예와 지는 옛 성인의 가르친 바요.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오직 내가 다시 정한 것이 아니라

천사님의 수심은 시천주에 뿌리를 둔 말이다. 하늘님을 모시면 안으로 신령(神靈)이 있고, 밖으로 기화(氣化)가 있다고 하셨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안에 둔 신령을 잘 지킨다는 뜻이요, 기운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밖에 둔 기화를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는 수심정기의 참뜻이다.

시천주가 되면 내유신령하고 외유기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守心)이 중요한 덕목이 된다. 반면에 시천주가 되지 않았으면 신령과 기화가 내 몸에 강림하지 않았으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닦는 것(修心)이 더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이다.

수심(守心)의 상대가 되는 말은 방심(放心)이다. 마음을 풀어 놓아 방임하는 것이다. 불경에서도 마음을 방임해 어지럽게 하면서 선정(禪定)의 경지를 얻는 사람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는 수심정기(守心正氣)는 수운교 수행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수운교 진리』에서 인용)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 선화 조문

김옥현 총무원장은 지난 8월 8일 선화한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증산도 도인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였다. 이날 조문에는 박신규 신도회장이 동행하였다. 한편 이찬구 전 법사원장은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별도로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하였으며, 8월 14일 오전에 거행된 영결식에 참여하여 추도사를 통해 고인의 생애와 뜻을 기리고 마지막 길을 추모하였다.

당 태종과 위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피하려고 합니다. 칭찬은 오래 듣고 싶지만, 비판은 짧게 듣고 싶어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점점 멀어지고 듣기 좋은 말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권력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과 멀어지게 됩니다.

중국 당나라의 제2대 황제 당 태종 이세민은 형제들을 제거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태종은 자신과 맞섰던 형 밑에서 참모로 일했던 위징이라는 인물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위징은 윗 사람에게 옳은 일과 그른 일을 거리낌 없이 간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태종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조정에서 바른말이 잘 나오지 않는가?”

위징은 신하들이 침묵하는 까닭을 설명했습니다. 성격이 약한 사람은 충직한 마음이 있어도 말할 용기가 부족하고, 관계가 먼 사람은 신임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 말하지 못하며,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은 손해를 볼까

염려하여 입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권력자에게 바른말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른말을 하는 용기만큼이나 그것을 기꺼이 듣고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관계가 어색해질까 침묵하고, 손해를 볼까 입을 다문다면 결국 아무도 잘못을 말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당 태종은 위징이 세상을 떠난 뒤 그를 그리워하며 다음과 같은 뜻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옷차림을 단정히 할 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나라가 흥하고 망한 까닭을 알 수 있으며,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잘잘못을 알 수 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고 바른말을 할 용기가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바른말을 해줄 때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른말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바른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조직과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고맙습니다.

제16회 제주 감무원 하계수련법회 성황리에 개최

교인동덕 400여 명 참석, 신앙을 다지고 화합과 단결의 뜻 모아

수운강생 205년 8월 30일 제주 봉개지부에서 제16회 제주도 감무원 하계수련법회가 교인동덕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수련법회는 제주 감무원 총무 오형범 광양지부장의 사회와 김석보 감무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었다.

제1부 의식에서는 명축분향을 시작으로 삼경의례, 주문봉송, 축원 등을 정성껏 봉행하였다. 이어 오형범 총무의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제주 봉개지부 경조사회 회장 김용순 화주의 교훈 제창을 시작으로 제2부 행사가 진행되었다.

김석보 감무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바쁜 가운데서도 수련법회에 참석한 교인동덕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오늘 하루 수운천사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교인 상호 간의 화합과 정을 나누는 뜻깊은 수련법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하였다. 이어 김옥현 총무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수운천사님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수운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수운교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 온 제주 수운교 청정봉사단 단장과 단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아울러 이번 하계수련법회를 준비한 김석보 감무원장과 감무원 임원, 각 지부장, 봉개지부 교인동덕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오전 특강은 김석보 감무원장이 맡아 제주지역 수운교 각 지부의 역사와

변천과정, 수운교의 진리와 교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식과 예절에 대해 강의하였다. 김 감무원장은 제주지역에 뿌리내린 수운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선대 교인들이 지켜온 신앙과 정성을 오늘의 교인들이 소중하게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전 일정을 마친 참석자들은 봉개지부 교인들과 제주 청정봉사단이 정성껏 마련한 점심공양을 함께하며 서로 정을 나누었다.

오후에는 오동구 홍로지부장(부감무원장)의 특강이 이어졌다. 오 부감무원장은 수운교에서 모시는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아미타부처님은 극락정토의 부처님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자비로 품어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며,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이 괴로움에 처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자비로 보살펴 주시는 보살님이다. 또한 대세지보살님은 지혜와 큰 힘으로 중생이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보살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특별 산신기도를 마지막으로 법회를 마무리 하였다.

김석보 감무원장은 폐회사에서 “오늘 수련법회를 통해 배우고 익힌 수운천사님의 가르침을 각자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교인동덕들이 더욱 화합하고 단결하여 수운교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수련법회는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교인으로서의 자세를 되새기는 한편, 제주지역 교인동덕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정을 나누고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모든 교육과 기도 일정을 마친 뒤에는 이날 행사의 즐거움을 더하는 경품권 추첨이 진행되었다.



수운교청정봉사단,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로 수운교 알리기 앞장

수운교청정봉사단(단장 김옥산)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수운강생 205년 7월 18일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봉사단 사무실을 보수해 보다 쾌적한 봉사활동 환경을 마련했다. 이어 8월 20일에는 단원들이 서귀포시 남원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에 참가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봉사단은 오는 9월 열리는 제46회 전국장애인대회와 10월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단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수와 관제자, 방문객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8월 30일 수운교 봉개지부에서 열린 제16회 수운교 하계수련대회에도 단원 50여명이 참석해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수운교청정봉사단은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매주 토요일 독거노인 12분에 정성껏 마련한 반찬을 직접 배달하는 등 지속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면서 수운교의 가르침과 봉사의 정신을 지역 사회에 알리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김옥산 단장은 “작은 정성과 꾸준한 실천이 지역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단원들과 함께 이웃을 살피고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운교청정봉사단은 앞으로도 체육대회 자원봉사를 비롯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나눔과 봉사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수운교 알리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

☞

회사금 명단

▶ 현금회사

· 100만원이상 : 강영녀 가족일동(봉개지부)

· 80만원이상 : 유희자

· 50만원이상 : 한동, 성산교인 일동 (본부참배)

· 30만원이상 : 서상유, 정애영(상효), 최돈영, 최은나, 대곶지부 교인일동

· 20만원이상 : 김광남, 황성근(신성곰탕), 장병섭(시향제)

· 10만원이상 : 최현규, 이기세, 이상훈(시향제), 이주옥, 손만순

· 10만원이하 : 유명근

▶ 물품회사

문묘심(감자 1박스), 민병환(머위 4kg 3박스), 윤옥희(절편 1말 반), 최미정(시루떡 2회 2말), 김종일(레미콘 자갈 두차), 안상원(약밥 1말), 김영기 생수 (500ml*24개) 50박스, 유희자(백설기 1말), 박정희(수산물 2박스), 안금순(절편 2말, 백설기 2말), 석영일(대형타올 60장), 서금순(사과 1박스, 배 1박스, 포도 1박스, 밤, 대추), 예종강(편떡 1말) 이순규(생미 30kg, 들기름 2병, 고사리), 조양선(송편 반말)

☞

☞

포덕성금 모금에 동참합시다

포덕성금은 3대원(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성취를 위해 교화사업을 하기 위한 성금입니다. 3대원 속득 성취를 위해 많은 분들이 성금 모금에 동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인 1만원 이상 자동이체하여 주시면 됩니다.

농협 453116-51-062203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계·시·관	상·하반기	게시판	☞문의 ☎ (042) 861-1771☜	
◎ 삭망치성기도	매월 음 1일,15일	오전 7시 20분	3	단
◎ 백일기도치성	매월 음 27일	오후 2시	봉령각	
◎ 수련기도	매월 음 1일~7일	오후 2시	봉령각	
◎ 법일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법회당	
◎ 인등이백일기도	9월 13일 (음 8월 3일)	오전 10시	봉령각	
◎ 백일기도종공	9월 19일 (음 8월 9일)	오후 2시	봉령각	
◎ 한가위	9월 25일 (음 8월 15일)			
◎ 백일기도입재	10월 7일 (음 8월 27일)	오후 2시	봉령각	
◎ 3·7 삼대원성취기도 입재	10월 8일 (음 8월 28일) 21일간	오전 10시	봉령각	
◎ 교주열반제 3·7 삼대원성취기도종공	10월 28일 (음 9월 18일)	오전 10시	봉령각	
◎ 조왕재일	11월 8일 (음 9월 29일)	오후 3시	장실	
◎ 용왕재일	11월 11일 (음 10월 3일)	오후 3시	장실	
◎ 산왕재일	11월 14일 (음 10월 6일)	오후 3시	산제단	
◎ 수능백일기도종공	11월 18일 (음 10월 10일)	오전 10시	봉령각	
◎ 개교기념일	11월 23일 (음 10월 15일)	오전 10시	도솔천	
◎ 위령재일	11월 24일 (음 10월 16일)	오전 10시	법회당	
◎ 인등삼백일기도	12월 20일 (음 11월 12일)	오전 10시	봉령각	
◎ 동지기도	12월 22일 (음 11월 14일)	오전 10시	3단	
◎ 백일기도종공	27년 1월 14일(음 12월 7일)	오후 2시	봉령각	
◎ 인등기도 종공	27년 1월 17일(음 12월 10일)	오전 10시	봉령각	

장학성금 모금에 동참합시다

장학성금은 수운교인 또는 수운교와 인연이 있는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주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성금입니다.

1인 1만원 이상 자동이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협 453116-51-073795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공·기도미를 납부합시다

공·기도미(8만원)는 수운교 교헌에 의하여 매년 음력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각각 납부하는 교인의 의무입니다.

☞문의 ☎(042) 861-1771☜

농협 453116-51-010348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새마을금고 9002-1796-7840-6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 본부 국내 교인만 입금하고 지부교인은 소속지부에 납부바랍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유만준 학선군부인 (자 김석진), 김기분 학선군부인 (夫 정재동)

김석기 봉령군대인 (자 영종), 강무희 학선군부인 (자 박덕수)

천덕사은(天德師恩)에 감사드리는 풍요로운 한가위

온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 수운교 총무원 임직원 일동 -